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명	2024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시	2023. 12. 29.(금) 10:00 ~ 11:45
장소	서울캠퍼스 본관 2층 제2회의실/ERICA 본관 2층 프라임 컨퍼런스홀 (캠퍼스간 화상회의로 진행)
참석현황	참석대상 위원 11명 중 11명 참석, 참관위원 3명 참석, 간사 2명 참석
회의안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 본예산 편성(안) 설명 및 질의응답</li> <li>외국인 유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안) 심의</li> <li>2024 등록금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원 1인 선정</li> </ol>
회의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원 보고(서울 예산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11명 중 11명 참석으로 성원 보고</li> </ul> </li> <li>개회 선언 후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 미참석한 총무처장 위원을 소개함</li> <li>2024 본예산 편성(안) 설명 및 질의응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캠퍼스 2024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함(서울 예산팀장)</li> <li>ERICA 2024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함(ERICA 예산팀장)</li> <li>2024 본예산 편성(안)과 관련하여 질문 사항이 있는지 질의함(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 본예산 편성(안)과 관련한 질문을 하기 이전에 2024학년도 등록금 인상안에 대해서 듣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고 함(대학원 총학생회장)</li> <li>다음 순서로 외국인 유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먼저 질문하여 설명하겠다고 함. 2024 편성(안)에 보듯이 수입과 지출액 차이가 76억 원이라고 함. 외국인 유학생 입학금은 동결, 학부와 대학원 수업료는 5% 인상 계획이라고 함(서울 예산팀장)</li> <li>내국인 등록금 인상 계획도 질문함(대학원 총학생회장)</li> <li>내국인 등록금 인상(안)은 아직 논의 중이므로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언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함(서울 예산팀장)</li> <li>2024 본예산(안)에는 등록금 인상을 반영한 금액인지를 질의함(대학원 총학생회장)</li> <li>등록금 인상(안)의 경우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함(서울 예산팀장)</li> <li>현재 서울과 ERICA 예산자료에는 외국인 등록금 수입이 구분되어 표시하지</li> </ul> </li> </ol> </li> </ol>

아니하여, 서울과 ERICA 외국인 학부 및 대학원 수입을 질문함(대학원 총학생 회장)

- 해당 금액은 확인 후 알려주기로 함(서울 예산팀장)
- 학제 개편이 크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양 인터칼리지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현재 해당 학과와 관련해서는 행정부서 팀장만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로는 관련 금액을 배정된 것은 없고, 대학혁신지원사업 국고로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함(서울 예산팀장)
- 등록금회계에서는 학제개편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이 없는 것인지 재확인 요청함(대학원 학생회장)
- 인터칼리지와 관련해서는 모든 예산이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배정될 예정이라고 함(서울 예산팀장)
- 해당 국고는 어느 정도 금액인지 질문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작년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감안해서 약 110억 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인센티브를 추정할 수 없어서 60억정도로 편성 했으며, 해당 금액이 확정되면 인터칼리지로 사용할 계획에 있다고 함(서울 예산팀장)
- ERICA 경우에도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학제개편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함(ERICA 예산팀장)
- 대학원 총학생회장에 질문한 내용에 답변으로,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를 5% 인상을 하는 경우 서울은 학부에서 8억원, 대학원에서 12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함. 다만 여기서 25%정도는 장학금으로 집행되므로 이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함(서울 예산팀장)
- ERICA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를 5%를 인상하는 경우 학부에서 7.6억원, 대학원에서 4.6억원으로 총 12.2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함. 장학금 집행을 감안하면 실제 늘어나는 금액은 10억 원 미만이라고 설명함(ERICA 예산팀장)
-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를 5%를 인상하는 경우, 서울캠퍼스와 ERICA의 경우 적자 폭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질의함(서울 총무처장)
- 서울캠퍼스의 경우 현재 76억 적자인데, 등록금수입이 20억원 정도 늘어난다고 해도 늘어나는 장학금을 감안하면 적자 폭은 6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함. 그럼에도 적자 폭을 줄이기 힘든 경우 불가피하게 홍보비나 행사비를 강제로 일정비율 감액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함(서울 예산팀장)
- ERICA는 적자 35억에서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을 반영해도 적자 폭은 25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함(ERICA 예산팀장)
- 공과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과 대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확인이 되는지 질문함(서울 총무처장)
- 예산서에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전기, 수도, 난방에서 30%정도 증가하였으며 30억 원가량 증가하였다고 함(서울 예산팀장)

- ERICA는 2022학년도에 52억에서 2023학년도에 68억으로 증가했으며, 2024학년도에 물가 인상분이 추가로 반영되면 추가예산 배정이 불가피하다고 함. 다만,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공과금 인상 등 각종 비용이 증가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수준을 지속해서 끌어올리기 위한 부분도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언급함(ERICA 예산팀장)
- ERICA의 경우 통근, 통학버스 예산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질의함(서울 총무처장)
- 통근, 통학버스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올해 12억 원정도 집행이 예상되며, 2024학년도에는 15억 원으로 편성했으나 실제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함(ERICA 예산팀장)
- 학교가 재정적으로 힘든 것은 모든 구성원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함. 다만, 한양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외국인 유학생 모집을 확대하겠다고 하였는데, 외국인 유학생 모집을 확대하는 것과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에는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고 언급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학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함.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교육 수준의 질적인 부분도 중요하며 이 부분에서도 노력하기 위함으로 이해해 달라고 언급함(서울 총무처장)
- 대학원 장학금의 경우 총액은 늘었으나, 1인당 장학금은 작년에 비해 줄어 들었다고 함. 1인당 장학금 금액이 늘어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학교 차원에서 장학금을 크게 증액하였으나, 1인당 장학금이 유학생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서는 늘어나지 않았음을 본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에 있는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도 많아서 1인당 장학금이 늘거나 줄 수 있다고 설명함(서울 예산팀장)
- 학교에서 장학금 총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만큼 학생 수도 크게 늘었다고 함. 코로나19 시기에 대학원 학생 수가 크게 늘면서 대학 수입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함. 서울캠퍼스는 서울권 대학원 중에서 장학금 비율이 가장 낮으며, ERICA의 경우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함. 대학원 학생 수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충원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함. 장학금 배정에 시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해서 즉각적으로 장학금이 증가하지 않는 것에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학생 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하며,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편성되는지 질문함(대학원 총학생회)
- 장학금은 지속해서 증액 편성을 하고 있으며, 학생 수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장학금 지급에 시차가 발생하였다고 함. 추가 사항은 요청을 주면 설명토록 하겠다고 함(서울 예산팀장)

- 제6,7학생생활관에 대해서 24년도 수입예산이 6생활관은 10억, 7생활관은 17억 원으로 확인했다고 함. 2024년 4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예산서에 반영된 학생생활관 수입금액이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지 설명을 요청함(서울 52대 비상대책위원장)
- 제6,7생활관 공사가 다소 지연되는 부분은 있지만, 완공해서 2024학년도 2학기에는 모집 예정이라고 함. 내부 리모델링 고급화도 진행 중이어서 6,7생활관 입주는 2학기에 예정이라고 함(서울 예산팀장)
- 제6,7생활관 수입예산은 2학기에 대한 한 학기분인지 확인 요청함. 그리고 2025학년도부터는 2배의 금액이 수입으로 계상되는 게 맞는지 확인 요청함(서울 52대 비상대책위원장)
- 2024학년도 예산은 한 학기 분이 맞으며, 2025학년도부터는 2배의 금액이 수입으로 계상될 것이라고 설명함. 기숙사의 경우 수익사업이 아니라 복지사업이므로 수입이 들어오는 만큼 지출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서울 예산팀장)
- 기숙사의 경우 실제로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다고 함. 그리고 총장님이 동문으로부터 기부금을 지속해서 모금하고 있으며, 내부 인테리어를 고급화하려고 한다고 함(서울 기획처장)
- 2023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면 건축물관리비가 본예산 대비 2배 넘게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를 질의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대부분은 국고 사업이 확정되면서 해당 지출이 건축물관리비 계정으로 집행하면서 증가하였으며, RC에서도 기금을 인출하여 공사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비 계정으로 집행하면서 늘어났다고 설명함. 예를 들어 백남음악관 조명 공사의 경우 무대 시설 조명으로 오래된 구조물이라 안전에 위험이 생겨서 4~5억 가량 집행된 내역이 있다고 함(서울 예산팀장)
- 서울캠퍼스만 보아도 현재 진행 중인 신축공사가 3건이 있고, 공사 예정인 신축건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집행을 위한 건축기금 상황과 기금 소진 예정 시기를 질의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현재 본부에서 집행가능한 기금이 790억가량 있으며, 해당 금액은 내후년정도면 소진이 예상된다고 함.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차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에서 적립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남아있는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축기금 적립도 최대한으로 하고, 기채도 추가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함. 기채의 경우 최대 신청 가능 금액인 250억원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40억 원만 배정을 받았음을 설명함. 내년과 내후년에도 지속해서 기채를 신청할 예정이며, 적립과 기채를 통해서 남은 공사대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함(서울 예산팀장)
-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에 찬성하지만, 학교 내에 오래된 건물에 대한 보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노후화된 건물의 보수가 후순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적립금은 신축을 위한 공사에 집행이 되고 있다고 함. 제1학생생활관이 특히 오래되었으며, 학생회관과 한양플라자의 경우 내부 리모델링은 하였지만 골조

자체가 문제이므로 보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제1학생생활관의 경우 학교에서도 고려는 하고 있으며,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에 개략적인 안으로는 천억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므로 현재 예산에는 반영된 것은 없다고 설명함. 설계가 확정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이후에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함(서울 예산팀장)

- 새로운 건물도 중요하지만, 현재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 만큼 현재 건물 보수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함. 아울러 학생회관과 한양플라자에 대한 보수 계획이 있는지 질의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한양플라자의 경우 1층 테라스와 엘리베이터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학생회관도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해당 부분은 한양대학교 백주년과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라 같이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서울 예산팀장)

- 본부기금이 790억 원이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24학년도 공사비 예상 금액이 620억 원으로 진행 중인 공사가 예년에 비해서 많은 편이라고 함. 기금 소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함(서울 52대 비상대책위원장)

- 가용할 수 있는 기금이 소진되는 것은 3년 정도 내에는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함. 소진 전까지 적립을 최대한 할 것이며, 사택 매각 등으로 자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함. 진행 예정인 공사가 일시에 시작하면 공사 진행이 어렵지만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그동안 공사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함(서울 예산팀장)

-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참관인에게 발언의 기회가 있는지 질문함(ERICA 총학생회장)

- 차년도 총학생회장으로서 당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참관인으로 참석한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지난번 회의 때 합의하였다고 설명함(서울 예산팀장)

- 외국인 유학생 학우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언급함. 다만,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인센티브로 배정하는 예산을 각 RC에서는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이에 대한 가이드를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을 제안함(2024학년도 ERICA 총학생회장)

- RC에 배정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예산은 50%이상은 외국인을 위해 집행하도록 가이드를 안내하고 있다고 함. 부연설명을 하고자 하면, 등록금에 대해 100%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하는 경우에도, 교원채용 비용 등 투입비용이 상당하다고 설명함(ERICA 예산팀장)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장학금에 대한 안내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 예산 가이드를 자세하고

엄격하게 제안해 주기를 요청함(2024학년도 ERICA 총학생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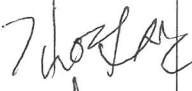

- 이와 관련해서는 국제처와 협의할 예정이며, 외국인 장학금에 대한 수혜도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함(ERICA 예산팀장)
- 대학원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의 질 관리에 대해 지속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함. 입학하는 단계에서 가이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서울캠퍼스의 경우 입학기준을 상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ERICA의 경우 서울캠퍼스와 차이가 있는 입학기준이나 학점 기준 등 가이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토픽을 기준으로 보면 학부는 3급, 대학원은 4급으로 알고 있다고 함. 입학한 이후에 토픽 급수에 대한 장학금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함(위원장)
- 대학원의 경우 단순 고등교육 수준이 아닌 스스로 연구하고 탐구하는 기관인데, 토픽 4급으로는 스스로 연구하고 탐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함. 또한, 이에 따라 오히려 내국인이 역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함. 이 부분은 국제처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국제처에서 갖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등록금 심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학부에서도 어느 정도 토픽 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하면 현재 듣고 있는 수업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함(서울 52대 비상대책위원장)
- 서울캠퍼스 국제처와 논의해서 다음 회의에 제공하겠다고 함(서울 예산팀장)
- ERICA의 경우에도 국제처와 논의해서 다음 회의 때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함(ERICA 예산팀장)
- 금일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과 관련하여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판단되며, 추가 질문이 없는지 확인함. 별도 요청자료가 있으면 예산팀으로 요청하기로 함(위원장)


4. 2024 등록금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원 1인 선정

가. 총장이 추천한 추천후보 2인 중 이○회계법인 박○학 회계사를 등록금심의위원으로 선임(참석위원 전원 동의)

5. 향후 일정 : 제3차회의 2024년 1월 3일(수) 오전 10시

6. 폐회선언(위원장)

참석현황	참석 대상자	11명	참석자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참석자	11명		위원장	이○석			위원	안○익	
	불참자	0명		위원	위○찬			위원	황○현	
불참인원			위원	임○건			위원	김○은	김도은	
			위원	이○열			위원	박○원		
			위원	김○산			위원	이○성		
			위원	박○학						
간사	소속 : 서울 기획처 예산팀		직위 : 부장 (예산팀장)		성명 : 김○준					
간사	소속 : ERICA 기획처 예산팀		직위 : 부장 (예산팀장)		성명 : 서○민					
간사	소속 : 서울 총무처 재무팀		직위 : 부장 (재무팀장)		성명 : 배○진					
작성자	소속 : 서울 기획처 예산팀		직위 : 대리		성명 : 유○규					

참석 현황	참석 대상자	11명	참석자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참석자	11명		위원장	이○석		위원	안○익	
	불참자	0명		위원	위○찬		위원	황○현	
위원			임○건		위원	김○은			
불참인원			위원	이○열		위원	박○원		
			위원	김○산		위원	이○성		
			위원	박○학					
간사	소속 : 서울 기획처 예산팀		직위 : 부장 (예산팀장)		성명 : 김○준				
간사	소속 : ERICA 기획처 예산팀		직위 : 부장 (예산팀장)		성명 : 서○민				
간사	소속 : 서울 총무처 재무팀		직위 : 부장 (재무팀장)		성명 : 배○진				
작성자	소속 : 서울 기획처 예산팀		직위 : 대리		성명 : 유○규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명	2024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시	2023. 12. 29.(금) 10:00 ~ 11:45
장소	서울캠퍼스 본관 2층 제2회의실/ERICA 본관 2층 프라임 컨퍼런스홀 (캠퍼스간 화상회의로 진행)
참석현황	참석대상 위원 11명 중 11명 참석, 참관위원 3명 참석, 간사 2명 참석
회의안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 본예산 편성(안) 설명 및 질의응답</li> <li>외국인 유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안) 심의</li> <li>2024 등록금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원 1인 선정</li> </ol>
회의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원 보고(서울 예산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11명 중 11명 참석으로 성원 보고</li> </ul> </li> <li>개회 선언 후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 미참석한 총무처장 위원을 소개함</li> <li>2024 본예산 편성(안) 설명 및 질의응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캠퍼스 2024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함(서울 예산팀장)</li> <li>ERICA 2024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함(ERICA 예산팀장)</li> <li>2024 본예산 편성(안)과 관련하여 질문 사항이 있는지 질의함(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 본예산 편성(안)과 관련한 질문을 하기 이전에 2024학년도 등록금 인상안에 대해서 듣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고 함(대학원 총학생회장)</li> <li>다음 순서로 외국인 유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먼저 질문하여 설명하겠다고 함. 2024 편성(안)에 보듯이 수입과 지출액 차이가 76억 원이라고 함. 외국인 유학생 입학금은 동결, 학부와 대학원 수업료는 5% 인상 계획이라고 함(서울 예산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국인 등록금 인상 계획도 질문함(대학원 총학생회장)</li> <li>내국인 등록금 인상(안)은 아직 논의 중이므로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언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함(서울 예산팀장)</li> <li>2024 본예산(안)에는 등록금 인상을 반영한 금액인지를 질의함(대학원 총학생회장)</li> <li>등록금 인상(안)의 경우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함(서울 예산팀장)</li> <li>현재 서울과 ERICA 예산자료에는 외국인 등록금 수입이 구분되어 표시하지</li> </ul> </li> </ul> </li> </ol> </li> </ol>

아니하여, 서울과 ERICA 외국인 학부 및 대학원 수입을 질문함(대학원 총학생 회장)

- 해당 금액은 확인 후 알려주기로 함(서울 예산팀장)

- 학제 개편이 크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양 인터칼리지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현재 해당 학과와 관련해서는 행정부서 팀장만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로는 관련 금액을 배정된 것은 없고, 대학혁신지원사업 국고로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함(서울 예산팀장)

- 등록금회계에서는 학제개편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이 없는 것인지 재확인 요청함(대학원 학생회장)

- 인터칼리지와 관련해서는 모든 예산이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배정될 예정이라고 함(서울 예산팀장)

- 해당 국고는 어느 정도 금액인지 질문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작년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감안해서 약 110억 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인센티브를 추정할 수 없어서 60억정도로 편성 했으며, 해당 금액이 확정되면 인터칼리지로 사용할 계획에 있다고 함(서울 예산팀장)

- ERICA 경우에도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학제개편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함(ERICA 예산팀장)

- 대학원 총학생회장에 질문한 내용에 답변으로,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를 5% 인상을 하는 경우 서울은 학부에서 8억원, 대학원에서 12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함. 다만 여기서 25%정도는 장학금으로 집행되므로 이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함(서울 예산팀장)

- ERICA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를 5%를 인상하는 경우 학부에서 7.6억원, 대학원에서 4.6억원으로 총 12.2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함. 장학금 집행을 감안하면 실제 늘어나는 금액은 10억 원 미만이라고 설명함(ERICA 예산팀장)

-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를 5%를 인상하는 경우, 서울캠퍼스와 ERICA의 경우 적자 폭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질의함(서울 총무처장)

- 서울캠퍼스의 경우 현재 76억 적자인데, 등록금수입이 20억원 정도 늘어난다고 해도 늘어나는 장학금을 감안하면 적자 폭은 6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함. 그럼에도 적자 폭을 줄이기 힘든 경우 불가피하게 홍보비나 행사비를 강제로 일정비율 감액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함(서울 예산팀장)

- ERICA는 적자 35억에서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을 반영해도 적자 폭은 25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함(ERICA 예산팀장)

- 공과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과 대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확인이 되는지 질문함(서울 총무처장)

- 예산서에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전기, 수도, 난방에서 30%정도 증가하였으며 30억 원가량 증가하였다고 함(서울 예산팀장)

- ERICA는 2022학년도에 52억에서 2023학년도에 68억으로 증가했으며, 2024학년도에 물가 인상분이 추가로 반영되면 추가예산 배정이 불가피하다고 함. 다만,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공과금 인상 등 각종 비용이 증가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수준을 지속해서 끌어올리기 위한 부분도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언급함(ERICA 예산팀장)
- ERICA의 경우 통근, 통학버스 예산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질의함(서울 총무처장)
- 통근, 통학버스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올해 12억 원정도 집행이 예상되며, 2024학년도에는 15억 원으로 편성했으나 실제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함(ERICA 예산팀장)
- 학교가 재정적으로 힘든 것은 모든 구성원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함. 다만, 한양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외국인 유학생 모집을 확대하겠다고 하였는데, 외국인 유학생 모집을 확대하는 것과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에는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고 언급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학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함.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교육 수준의 질적인 부분도 중요하며 이 부분에서도 노력하기 위함으로 이해해 달라고 언급함(서울 총무처장)
- 대학원 장학금의 경우 총액은 늘었으나, 1인당 장학금은 작년에 비해 줄어 들었다고 함. 1인당 장학금 금액이 늘어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학교 차원에서 장학금을 크게 증액하였으나, 1인당 장학금이 유학생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서는 늘어나지 않았음을 본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에 있는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도 많아서 1인당 장학금이 늘거나 줄 수 있다고 설명함(서울 예산팀장)
- 학교에서 장학금 총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만큼 학생 수도 크게 늘었다고 함. 코로나19 시기에 대학원 학생 수가 크게 늘면서 대학 수입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함. 서울캠퍼스는 서울권 대학원 중에서 장학금 비율이 가장 낮으며, ERICA의 경우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함. 대학원 학생 수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총원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함. 장학금 배정에 시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해서 즉각적으로 장학금이 증가하지 않는 것에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학생 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하며,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편성되는지 질문함(대학원 총학생회)
- 장학금은 지속해서 증액 편성을 하고 있으며, 학생 수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장학금 지급에 시차가 발생하였다고 함. 추가 사항은 요청을 주면 설명토록 하겠다고 함(서울 예산팀장)

- 제6,7학생생활관에 대해서 24년도 수입예산이 6생활관은 10억, 7생활관은 17억 원으로 확인했다고 함. 2024년 4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예산서에 반영된 학생생활관 수입금액이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지 설명을 요청함(서울 52대 비상대책위원장)
- 제6,7생활관 공사가 다소 지연되는 부분은 있지만, 완공해서 2024학년도 2학기에는 모집 예정이라고 함. 내부 리모델링 고급화도 진행 중이어서 6,7생활관 입주는 2학기에 예정이라고 함(서울 예산팀장)
- 제6,7생활관 수입예산은 2학기에 대한 한 학기분인지 확인 요청함. 그리고 2025학년도부터는 2배의 금액이 수입으로 계상되는 게 맞는지 확인 요청함(서울 52대 비상대책위원장)
- 2024학년도 예산은 한 학기 분이 맞으며, 2025학년도부터는 2배의 금액이 수입으로 계상될 것이라고 설명함. 기숙사의 경우 수익사업이 아니라 복지사업이므로 수입이 들어오는 만큼 지출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서울 예산팀장)
- 기숙사의 경우 실제로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다고 함. 그리고 총장님이 동문으로부터 기부금을 지속해서 모금하고 있으며, 내부 인테리어를 고급화하려고 한다고 함(서울 기획처장)
- 2023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면 건축물관리비가 본예산 대비 2배 넘게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를 질의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대부분은 국고 사업이 확정되면서 해당 지출이 건축물관리비 계정으로 집행하면서 증가하였으며, RC에서도 기금을 인출하여 공사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비 계정으로 집행하면서 늘어났다고 설명함. 예를 들어 백남음악관 조명 공사의 경우 무대 시설 조명으로 오래된 구조물이라 안전에 위험이 생겨서 4~5억 가량 집행된 내역이 있다고 함(서울 예산팀장)
- 서울캠퍼스만 보아도 현재 진행 중인 신축공사가 3건이 있고, 공사 예정인 신축건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집행을 위한 건축기금 상황과 기금 소진 예정 시기를 질의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현재 본부에서 집행가능한 기금이 790억가량 있으며, 해당 금액은 내후년정도면 소진이 예상된다고 함.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차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에서 적립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남아있는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축기금 적립도 최대한으로 하고, 기채도 추가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함. 기채의 경우 최대 신청 가능 금액인 250억원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40억 원만 배정을 받았음을 설명함. 내년과 내후년에도 지속해서 기채를 신청할 예정이며, 적립과 기채를 통해서 남은 공사대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함(서울 예산팀장)
-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에 찬성하지만, 학교 내에 오래된 건물에 대한 보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노후화된 건물의 보수가 후순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적립금은 신축을 위한 공사에 집행이 되고 있다고 함. 제1학생생활관이 특히 오래되었으며, 학생회관과 한양플라자의 경우 내부 리모델링은 하였지만 골조

자체가 문제이므로 보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제1학생생활관의 경우 학교에서도 고려는 하고 있으며,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에 개략적인 안으로는 천역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므로 현재 예산에는 반영된 것은 없다고 설명함. 설계가 확정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이후에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함(서울 예산팀장)

- 새로운 건물도 중요하지만, 현재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 만큼 현재 건물 보수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함. 아울러 학생회관과 한양플라자에 대한 보수 계획이 있는지 질의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한양플라자의 경우 1층 테라스와 엘리베이터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학생회관도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해당 부분은 한양대학교 백주년과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라 같이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서울 예산팀장)

- 본부기금이 790억 원이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24학년도 공사비 예상 금액이 620억 원으로 진행 중인 공사가 예년에 비해서 많은 편이라고 함. 기금 소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함(서울 52대 비상대책위원장)

- 가용할 수 있는 기금이 소진되는 것은 3년 정도 내에는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함. 소진 전까지 적립을 최대한 할 것이며, 사택 매각 등으로 자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함. 진행 예정인 공사가 일시에 시작하면 공사 진행이 어렵지만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그동안 공사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함(서울 예산팀장)

-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참관인에게 발언의 기회가 있는지 질문함(ERICA 총학생회장)

- 차년도 총학생회장으로서 당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참관인으로 참석한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지난번 회의 때 합의하였다고 설명함(서울 예산팀장)

- 외국인 유학생 학우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언급함. 다만,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인센티브로 배정하는 예산을 각 RC에서는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이에 대한 가이드를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을 제안함(2024학년도 ERICA 총학생회장)

- RC에 배정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예산은 50%이상은 외국인을 위해 집행하도록 가이드를 안내하고 있다고 함. 부연설명을 하고자 하면, 등록금에 대해 100%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하는 경우에도, 교원채용 비용 등 투입비용이 상당하다고 설명함(ERICA 예산팀장)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장학금에 대한 안내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 예산 가이드를 자세하고

엄격하게 제안해 주기를 요청함(2024학년도 ERICA 총학생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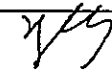

- 이와 관련해서는 국제처와 협의할 예정이며, 외국인 장학금에 대한 수혜도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함(ERICA 예산팀장)
- 대학원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의 질 관리에 대해 지속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함. 입학하는 단계에서 가이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서울캠퍼스의 경우 입학기준을 상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ERICA의 경우 서울캠퍼스와 차이가 있는 입학기준이나 학점 기준 등 가이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토픽을 기준으로 보면 학부는 3급, 대학원은 4급으로 알고 있다고 함. 입학한 이후에 토픽 급수에 대한 장학금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함(위원장)
- 대학원의 경우 단순 고등교육 수준이 아닌 스스로 연구하고 탐구하는 기관인데, 토픽 4급으로는 스스로 연구하고 탐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함. 또한, 이에 따라 오히려 내국인이 역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함. 이 부분은 국제처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국제처에서 갖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등록금 심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학부에서도 어느 정도 토픽 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하면 현재 듣고 있는 수업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함(서울 52대 비상대책위원장)
- 서울캠퍼스 국제처와 논의해서 다음 회의에 제공할 것이라고 함(서울 예산팀장)
- ERICA의 경우에도 국제처와 논의해서 다음 회의 때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함(ERICA 예산팀장)
- 금일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과 관련하여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판단되며, 추가 질문이 없는지 확인함. 별도 요청자료가 있으면 예산팀으로 요청하기로 함(위원장)

4. 2024 등록금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원 1인 선정

가. 총장이 추천한 추천후보 2인 중 이○회계법인 박○학 회계사를 등록금심의위원으로 선임(참석위원 전원 동의)

5. 향후 일정 : 제3차회의 2024년 1월 3일(수) 오전 10시

6. 폐회선언(위원장)

참석 현황	참석 대상자	11명	참석자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참석자	11명		위원장	이○석		위원	안○익	
	불참자	0명		위원	위○찬		위원	황○현	
불참인원			위원	임○건		위원	김○은		
			위원	이○열		위원	박○원	박세원	
			위원	김○산		위원	이○성	이준성	
			위원	박○학					
간사	소속 : 서울 기획처 예산팀			직위 : 부장 (예산팀장)		성명 : 김○준			
간사	소속 : ERICA 기획처 예산팀			직위 : 부장 (예산팀장)		성명 : 거○민			
간사	소속 : 서울 총무처 재무팀			직위 : 부장 (재무팀장)		성명 : 배○진			
작성자	소속 : 서울 기획처 예산팀			직위 : 대리		성명 : 유○규			